

# KS, 불펜 전쟁

“불펜이 미래다”

**두산**

박치국·김승희·함덕주

“OK! 불펜”

**SK**

신재용·산체스·김태훈

이용찬 (29)		켈리 (30)	
185cm / 85kg (우투우타)	체격	188cm / 86kg (우투우타)	
15승 3패 (평균자책점 3.63)		시즌 성적 12승 7패 (4.09)	
1승 1패 (5.68)	맞대결	3승 1패 (3.03)	
2억 3,500만원	연봉	140만 달러	
KS 첫 선발 등판	특징	KS 첫 등판	
주무기: 포크볼		커터, 체인지업	

자료/KBO

## 승부는 7회부터 ... 한국시리즈 3·4·5차전 불펜투수 대결에 승패 갈린다

두산 베어스의 '원투 펀치' 조쉬 린드블럼과 세스 후랭코프는 10개 구단의 최강의 외국인 투수다.

린드블럼은 정규시즌 유일하게 2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며 전체 1위에 올랐고 후랭코프는 다승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들이 1회부터 9회까지 몽땅 책임질 수는 없다.

둘의 한계 이닝은 6회, 길어야 7회라고 봐야 한다.

린드블럼은 한국시리즈 1차전에서 6.1이닝, 2차전에 등판한 후랭코프는 6.2이닝을 던지고 교체됐다. 둘 다 투구 수가 100개 안팎이 된 7회가 되자 구위가 급격히 떨어지며 교체됐다.

SK 와이번스의 원투 펀치인 김광현과 메릴 켈리 역시 마찬가지다.

김광현은 넥센 히어로즈와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6이닝을 던졌고 5차전에서는 5.2이닝을 소화하고 내려갔다.

켈리는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4이닝만 던지고 손 저립 현상으로 교체됐고 5차전에는 불펜으로 등판했다.

내일이 없는 가을야구는 선발투수가 내려간 7회 이후 승부의 흐름이 수시로 출렁거리고 있다.

그만큼 불펜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뒤집힐 가능성도 농후하다.

1.2선발이 아닌 3.4선발이 등판하는 경기는 불펜을 가동하는 시점이 더욱 빨라진

다.

7일부터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리는 3.4.5차전은 선발투수보다 불펜투수들의 대결에서 승부가 갈릴 공산이 크다.

불펜투수의 역할은 시리즈가 진행될수록 더욱 커질 것이다.

두산과 SK 불펜은 어느 팀이 낫다고 단정하기 쉽지 않다.

정규시즌에서는 두산 불펜진의 평균자책점이 5.13(전체 5위)으로 SK의 5.49(전체 7위)보다 조금 낮았다. 그러나 SK는 포스트시즌 들어 불펜진이 강화된 느낌이다.

마무리 신재용이 부진하긴 하지만 양철 산체스가 불펜으로 변신해 위력을 떨쳤고

김태훈과 정영일, 윤희상, 김택형 등도 정규시즌보다 나은 모습이다.

두산은 2차전에서 박치국, 김승희, 함덕주가 필조로 나서 승리를 지켰다.

하지만 김강률이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제외된 것이 뼈아프다. 이 탓에 선발요원으로 뽑았던 이영하를 상황에 따라 불펜으로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올 한국시리즈는 두산이 우세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SK가 잠실 1,2차전에서 1승1패를 기록, 장기전이 될 공산이 커졌다.

그만큼 불펜투수들의 역할이 커지며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연합뉴스

## 두산 린드블럼, 최동원상 수상

평균자책 유일인 2점대 투수

외국인 선수로는 최초

조쉬 린드블럼(31·두산 베어스)이 '한국의 사이영상' 최동원상을 외국인 선수로는 최초로 받는다.

사단법인 최동원기념사업회는 6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에서 BNK 부산은행 '최동원상' 수상자로 린드블럼의 이름을 불렀다.

최동원상 수상 기준은 평균자책점 2.50, 선발 등판 30경기, 15승, 180이닝, 150탈삼진, 퀄리티스타트 15회다.

린드블럼은 이종 승리(15승)와 탈삼진(157개), 퀄리티스타트(21회)까지 3개 항목을 충족했다. 최동원기념사업회 측은 유일한 2점대 평균자책점(2.88) 투수라 평균자책점 기준까지 채운 것으로 인정했다.

린드블럼은 11일 부산 남구 BNK 부산은행 본점에서 열린 최동원상 시상식에서 상금 2000만원을 받는다.

2011년 세상을 떠난 최동원 전 감독을 기려 2014년 시상하기 시작한 최동원상은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2014년 양현종(KIA), 2015년 유희관,

2016년 장원준(이상 두산), 2017년 다시양현종이 수상했다.

작년까지는 국내 선수에게만 수상 자격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외국인 선수도 후보로 포함했다.

2015년 롯데 자이언츠에 입단한 린드블럼은 2016년까지 2년 동안 23승을 수확했다.

특히 2015년 210이닝을 소화해 롯데 선수로는 1996년 주형광(216.2이닝) 이후 19년 만에 시즌 200이닝을 돌파해 최동원의 이름을 따 '린드원'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올해 두산으로 이적한 린드블럼은 이 별명에 특별한 애착을 보였다.

한편, 최동원기념사업회는 올해부터 최동원의 후예를 육성하기 위해 '야마추어 미니 최동원상'을 제정했다.

수상자는 서준원(경남고 3학년)과 노시훈(마산용마고 3학년)이다.

서준원은 올해 롯데로부터 2019시즌 1차 지명을 받았다. 노시훈은 뇌종양을 극복하고 NC 다이노스로부터 2차 지명 10라운드에 지명됐다.

서준원과 노시훈에게는 장학금 300만원이 전달되고, 두 선수의 모교에도 각각 20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린드블럼

## 한국시리즈 3차전 시구 시각장애인 이상 씨

시각장애인이 한국시리즈 3차전 시구자로 SK 행복드림 구장 마운드에 오른다.

KBO는 6일 "인천 SK행복드림 구장에서 펼쳐지는 2018 신한은행 MY CAR KBO 한국시리즈 3차전의 시구자로 시각장애인 이상(57세) 씨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KBO는 야구와 관련된 특별한 사연을 가진 팬이 직접 한국시리즈에서 시구할 기회를 주기 위해 최근 시구자 공모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이씨는 평소 딸 세희양과 함께 야구장을 찾아 포수 뒤 관중석에서 소리란만 야구를 즐겨온 열혈 야구팬이다.

하지만, 올해 초 암 판정을 받은 이후 건강상의 문제로 야구장을 찾지 못했다.

딸 세희씨가 투병 중인 아버지를 위해 이번 시구자 공모에 사연을 신청하면서 이씨는 한국시리즈 마운드에 오르게 됐다.

이날 애국가와 밴드 부활의 보컬 출신인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정동하가 부른다.

한편 1승 1패를 주고받은 두산 베어스와 SK 와이번스는 7일 각각 이용찬과 켈리를 선발로 내세워 한국시리즈 3차전 대결을 벌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서울 히어로즈, 키움증권과 메인 스폰서 계약

서울 히어로즈 프로야구단이 내년부터 키움증권과 손을 잡는다. 히어로즈 구단은 6일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에서 메인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이며, 금액은 연간 100억원 규모다.

2008년 창단해 메인 스폰서십 계약으로 구단 운영비를 충당한다고 발표한 히어로즈 구단은 우리담배와 첫 명명권(네이밍 라이즈)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08년 8월 계약이 깨졌고, 2009시즌까지 메인스폰서를 구하지 못해 '히어로즈'라는 팀명으로 KBO리그에 참가했다.

넥센타이어와는 2010년 메인 스폰서 계약을 맺고 세 차례 계약을 연장하며 올해까지 총 9년 동안 함께했다.

2010년 2년 계약으로 시작한 둘의 인연은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 재계약으로 끈끈하게 이어졌다.

히어로즈 구단은 2016년을 앞두고 일본계 종합금융그룹 J트러스트와 스폰서십 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나 대부업체의 KBO리그 진입을 놓고 거센 논란이 일었고, 결국 히어로즈 구단은 넥센타이어와 3년 계약을 연장했다.

'넥센 히어로즈'는 2013년 첫 포스트시즌 진출을 시작으로 최근 6시즌 가운데 5차례 포스트시즌에 진출하며 강팀으로 성장했다.

올해는 끊이지 않는 사건-사고에도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시작으로 플레이오프 5차전까지 명승부를 펼쳐 야구팬의 박수를 받았다.

/연합뉴스

## 우즈 골프 세계랭킹 13위 ... 스피스 앞서

저스틴 로즈 1위 복귀

올해 제44차 골프 세계랭킹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저스틴 로즈(잉글랜드)의 세계랭킹 1위 복귀다.

로즈는 4일 끝난 유럽프로골프투어 터키항공 오픈 우승으로 지난 9월에 더스틴 존슨(미국)에게 내줬던 세계랭킹 1위를 되찾았다. 지난달 제주에서 더CJ컵 우승으로 난생처음 세계 1위에 올랐던 브룩스 캠퍼(미국)는 2위로 밀렸다.

존슨과 저스틴 토머스(미국)는 각각 3, 4위를 지켰다.

브라이언 디셔보(미국)가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를 6위로 밀어내며 자리를 바꿔 5위로 올라선 것도 상위권에서 일어난 변화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이번 주 세계랭킹에서 팬들의 눈길을 끈 사실은 타이거 우즈(미국·사진)가 조던 스피스(미국)를 앞선 것이다.

우즈는 지난주 14위에서 13위로 올라섰고 스피스는 13위에서 14위로 내려앉았다.

우즈가 세계랭킹에서 스피스에 앞선 건 지난 2014년 8월 이후 4년 만이다. 당시 스피스는 14위, 우즈는 13위였다.

스피스는 이후 우즈를 앞질러 세계랭킹 1위까지 올랐다. 올해 1월에만 해도 스피스는 세계랭킹 2위였고 우즈는 656위였다.

/연합뉴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켈리파잉 시리즈를 1위로 통과한 이정은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순천출신 이정은 LPGA 켈리파잉 수석 합격 '금의환황'

## “미국 진출? 생각 더 해볼게요”

'핫 식스' 이정은(22)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켈리파잉 시리즈를 수석으로 합격하고 금의환황했다.

4일 열린 LPGA 켈리파잉 시리즈에서 출전 선수 102명 가운데 1위를 차지한 이정은은 6일 귀국해 미국 진출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지난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상금, 대상 포인트, 평균 타수 등 주요 부문을 석권한 데 이어 올해도 상금(9억5305만원), 평균 타수(69.725타) 1위를 달리며 다관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정은은 그러나 "아직 미국 진출 여부는 정하지 못했다"며 "현재로는 거의 50대 50"이라고 신중할 모습을 보였다. 다음은 이정은과 일문일답.

-켈리파잉 시리즈를 1위로 마치고 귀국한 소감은.  
▲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한국에 돌아와 기쁘다. 8라운드는 처음 해봤는데 심적으로 힘들었다. 초반부터 커트라인인 45위 언저리에 있었으면 더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초반부터 상위권을 유지해 비교적 편하게 하고 왔다.

-우승은 언제부터 확신했나. 끝나고 생각난 사람은.  
▲ 사실 우승은 생각도 안 했는데 마지막 5홀, 3홀 정도 남기고부터 가능성

이 있다고 생각했다. 끝나고는 역시 부모님이 가장 먼저 생각났다.  
-미국 진출을 계속 고민 중이라고 했는데.  
▲LPGA에 가기 위해 켈리파잉 대회에 신청한 것이 아니고 아직 언어나 집 등 여러 준비도 될 때가 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가 가는 것이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고민이 되는 가장 큰 요인이 있다면.  
▲ 가장 첫 번째는 친구들이나 한국에 있는 좋아하는 사람들을 못 만나고 골프만 해야 한다는 점이다. 제가 아직 골프를 즐기지 못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 가면 잘 견딜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하는 것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환경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순전히 개인적인 판단만 해도 마찬가지로 인가.  
▲ 거의 50대 50이다. 아직 시간이 많으니가 더 고민해보겠다. 켈리파잉 시리즈에서 1등을 했고, 그런 상태에서 안 간다고 하면 한 명의 자리를 뺏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또 선수들의 꿈인 LPGA 투어를 그냥 편하자고 포기하는 그런 가벼운 문제는 아니다.

/연합뉴스